임원칼럼

기술혁신을 위한 충실한 메신저로 거듭나기를

장동립| 쌍용건설사장

'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업 '으로

최근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동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IMF 체제의 본격가동에 따라, 안으로는 민간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건설경기의 급격한 추락을 경험하였으며, 밖으로는 주력시장인 동남아 시장의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건설수주 물량의 극심한 감소를 맛보는 등 경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내일을기약할수없는초유의혼란기를감내하는 상황에있습니다. 이러한국내건설시장의혼란은, 이미지명도있는몇몇대기업들을도산이라는극단의길로내몰았으며, 아직까지도여러기업들이 생존이라는 불가피한 대의명제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안타까운현실로이끌고있습니다.

경기후퇴와 동반한 건설업계의 극심한 부침은, 당사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작용하였으며, 98년이후 당면한 경영위기의극복을위해다방면으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사적 차원의 일관된 노력의 결과, IMF이후 극도로 소진된 경영체력을 꾸준히 회복시킬 수 있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업 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도약의 시점에 도달하게되었습니다.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이러한중대한시점에서, 전임직원의그간의노력이 헛되지 않고, 향후 가시적 경영성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내 각 부문간의 조정과 통합을 통한 핵심역량의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외형성장을통해영업목표를달성하려던 기존의 성장드라이버 경영전략을 지양하는것으로, 경영전반에걸친원가절감과생산성향상에기반한수익성의극대화에목표를두어야함을 뜻합니다. 특히, 기술을 주요 경쟁기반으로 하는건설회사의경우, 수익성창출및기업경쟁력의 근원으로 기술력이 향후 영업기반을 대처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기술은 인간의 창의력이 생산수단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고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의지속적인투자와 개발은기업발전의원동력으로서 기업의 생존능력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약속하는 주요한 자산으로 작용하며, 기업간 경쟁과 교류의 절대적인 담보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경영자원이 부족하고 수주의존적인사업구조를가지고있는건설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상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은 우리가냉혹한미래사회의기업경쟁을헤쳐나갈 유일한무기로작용할전망입니다.

현대사회는 고도화 ·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기술경쟁을배경으로 한지식사회로의진입을모색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해, 다가오는21세기는지식과 정보에 기반한정보화사회이며, 지식사회는 곧 과학기술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변화에 맞추어 ' 기업생존 이라는 현실적 난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천년 건설시장의 선도적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이를 통한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있습니다.

뚜렷한 기업목표와 장기적인 경영전략 마련

자사의 경우 이미 중장기 경영전략을 통해 기술개발및연구개발투자의지속적인 확대방침을 밝힌바있으며, 쌍용건설을' 기술과명성그리고 자본력을 갖춘 국제적 대형 종합건설업체 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뚜렷한 기업목표와' 품질 최우선 이라는장기적인경영전략을마련해두고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철학을 구현하고 미래기업으로서의 성공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각 기술개발주체들을 중심으로다양한연구활동을 수행중에 있으며,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보조를같이하여생존을 위한기술개발전략의확대에도힘쓰고있습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충실한 메신저로

이런 투자의 일환으로, 「건설기술/쌍용」은 자사를중심으로개발 · 적용된기술사례및연구개발 실적을 소개하고, 축적된 현장기술의 노하우를 제공함은 물론, 기업의 기술비젼 및 기술전략을 지속적으로 공유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1995년6월 창간이래 대내외 기술정보의 공유와 연구성과 발표의 장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건설기술의 축적 및 저변확대를 위한 메신저(Messeng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예기치않은기업사정으로, 97년 12월 정간이후 약2년간의시간을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지 못했던점에대해깊은사의를표합니다. 그리고 오늘새롭게태어나는「건설기술/쌍용」을통해이제까지의 역할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혁신을 위한 충실한 메신저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약속드립니다.

상기했듯이, 21세기는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정보화 사회입니다. 서랍 속에 갇혀있는 정보는이미죽은지식이며, 기업의이익에기여할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들이야말로 기업경쟁력 제고를위한진정한지식이라는정신아래지식기반경영을 선도하는 메신저로서, 살아있는정보공유의 장으로서 보다 많은 관심과 이용이 있길 기원합니다.